

중저준위 연내 포화... 핵연료봉도 5년 남았다

〈고준위·사용 후 핵연료〉

긴급진단 한계 달한 한빛원전 핵폐기물

〈상〉 실태와 위험성

영광 한빛원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제 1 저장고가 설계 용량을 넘어선 채 추가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 2 저장고와 1·2·3발전소(2개 호기가 1발전소)내 임시 저장지역도 연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의 분석도 나왔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한계에 달했지만 한수원 측은 원전 가동을 멈추거나 폐기물을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대신 한빛원전 내에 추가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다.

원전 가동중단·경주 방폐장 이송 않고 용량 초과해 저장 추진

외부 노출 뎀 치명적... '라면 박스 쌓듯' 땀질 처방 안전성 논란

중저준위 핵폐기물 연내 포화=24일 한빛원전이 작성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현황(10월말 기준)'에 따르면 제 1 저장고 저장률은 100.1%로 정해진 용량을 넘어섰다. 실 저장용량은 200ℓ 드럼으로 1만 1696드럼이지만 원전 측은 1만 1708드럼을 저장한 데 이어 추가로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다.

제 2 저장고도 96.9%(8720드럼 중 8450드럼) ▲1발전소 76.7%(567드럼 중 435드럼) ▲2발전소 86.7%(2000드럼 중 1735드럼) ▲3발전소 93.4%(365드럼 중 341드럼)로 연내 모두 한계에 달하는 것으로 문서에 명시됐다.

한빛원전은 고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된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시설도 2019년 이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수원은 조밀 저장시설 설치를 통해 최대 2024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추가 핵시설 건설에 따른 위험성으로 영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수원, 설계용량 넘겨 추가저장= 문제는 한수원 측이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에 한계에 달했는데도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물을 경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대신, 설계 용량을 넘긴 저장고에 추가로 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것.

한빛원전 측은 앞서 이달 안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 1000드럼(200ℓ 들이)을 경

주 방폐장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조업손실과 안전성 검증 부실을 우려하는 영광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실행하지 못했다.

위험천만한 육상(차량)이송 안<광주일보 11월7일자 1면>도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운송 경로 주변 차단체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설계 용량을 웃도는 핵폐기물을 한빛원전 내에 저장하기로 한 것이다. 원전 측은 추가 저장을 위해 ▲1·2발전고 작업장소 및 이동공간 축소 ▲1·2발전고 핵종분석 검사 장소 축소 ▲ 일부 공간 확보 ▲ 발전소 내 저장지역 추가 확보 등의 방침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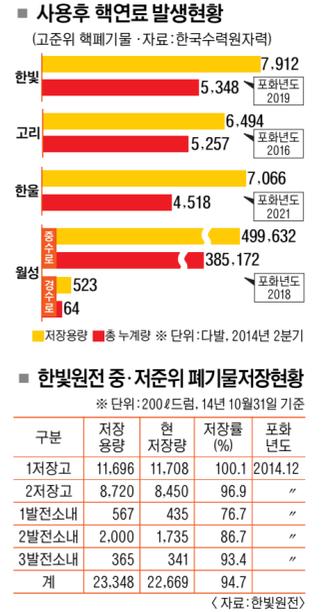
〈안전성 검토 없이 추가저장, 위험성 논란=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 첫 가동 이후 30여년 간 출근 1·2 저장고와 발전소 내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해 오다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 측이 안전성 검

토도 없이 조금씩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추가 저장하기로 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고나 화재로 외부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핵폐기물 보관을 마치 '라면 박스 쌓듯' 땀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원전 측의 대응에 비판이 제기된다.

한 원자력전문가(원자력공학박사)는 "사용 후 핵연료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화재가 나거나 사고로 외부 유출이 될 경우 견딜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임시 보관과 이송, 영구처분 등 모든 과정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송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만 탓할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예상했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한수원과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금융권 CEO '호남 약진'

호남출신 8명... 'PK·TK 독주'에 제동

"금융권 내부 판단 중요해져"

PK(부산·경남)·TK(대구·경북) 등 영남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금융권에서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출신이 약진하면서 '지역구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나주 출신 윤종규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국내 4대 금융 지주인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시중은행장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장에 광양 출신인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추천됐다. 최중선임은 28일 회원사 총회를 열어 결정된다.

그동안의 'PK·TK의 독주'에 제동을 건 인사는 윤종규 회장. KB금융지주 부사장이던 그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첫 호남 출신 금융지주 수장'이라는 점 이외에도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윤 회장도 호남 출신 첫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의미에 대해 "(특정지역 출신이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에 대한 내정 자체가 인사의 타평과 화합

을 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회장 외에 하나, 신한, 우리금융지주 등의 그룹 회장과 은행장은 모두 TK-PK출신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호남출신의 약진 배경으로 과거에 비해 청와대나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크게 줄어든 것을 꼽기도 한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장을 맡은 박진희 수석부행장도 강진 출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신임 행장은 이미 씨티그룹의 후계자 양성제도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차기 행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KB사태 이후 경영진 인선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이나 출신 지역에 대한 압력은 감소한 반면 각 금융회사의 내부 판단이 중요해졌다"며 "지역 차별을 없애고 고른 인재 등을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 CEO 중 호남 출신은 최현만(강진) 미래에셋생보 부회장, 나재철(나주) 대신증권 사장, 김병기(신안) 서울보증보험 사장, 최희문(광주) 메리츠증권 사장, 권선주(전주) 기업은행장, 임용택(무안) 전북은행장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대 실기시험 준비 24일 광주시 동구 공동 '그린섬 미술학원'에서 2015 대학입시 실기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조소 실습에 열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명과학 II 8번·영어 25번 복수정답 처리 '의과대 필수 과목' 이과 최상위권 혼란 예고

교육부 "수능 출제체제 개선"

201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 II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결국 복수정답 처리됐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 II에 응시한 3만 3000여명 중 3000~4000명이 등급이 오르고, 기존 정답자나 복수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은 성적이 떨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성훈 평가원장은 이번 출제 오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평가원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직후 5일간 접수된 문항 131개에 대한 이의신청 110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129개 문항은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생명과학 II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영어 25번 문항은 ④번과 함께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과대 등을 지원한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생명과

학 II는 의과대 필수 과목이어서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응시가 많았다. 광주에서는 219명, 전남에서는 361명이 응시했다.

김 평가원장은 브리핑을 마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중 가칭 '대학수능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13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광주시장 불법원룸 천지 ▶6면

문화전당 문이 열린다 ▶18면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雪花秀
Sulwhasoo
CAPULCELL™ SINCERITY
FORFORSAGE™ SINCERITY
자이진에센스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이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우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이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0-5454 (수신자 요금부담)